한화투자증권

2025년 9월 10일
산업분석

자동차 (Positive)

HMG 로봇 양산 추진 계획에 대한 재고(再考)

▶Analyst 김성래 sr.kim@hanwha.com 3772-7751 / RA 김예인 yein.kim@hanwha.com 3772-8420

현대차그룹, 로봇 3만대 대량 생산 계획 발표

-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발표했던 210억달러 투자계획에서 50억달러(약 6.9억원) 증액된 26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증액된 계획에는 HMGMA 20만대 증설 포함하여 로봇 양산에 대한 계획이 포함.
- 금번 50억달러 증액된 투자 계획 관련하여 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양산 CAPA가 3만대로 제시됨에 따라, 로보틱스 R&D 및 생산 시설 구축 관련 투자 규모가 구체화될 것으로 추정

로봇 3만대 양산을 위한 미국 현지 생산 체제 구축의 의미

- **(① 유의미한 규모의 미래 신사업 개시)** '28년까지 로봇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29년 양산 시작하여 '30년 기점으로 매년 3만대 규모의 로봇이 본격적으로 양산. 연 2.5조~3조원 급 대규모 로봇 사업 계획이 구체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
  - 양산할 로봇에 대한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 및 제품별 생산 물량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주요 제품인 SPOT, STRETCH(물류 팔레타이징) 및 ATLAS(휴머노이드)을 중심으로 한 생산 예상
  - 보스턴 다이내믹스 주요 제품의 현재 가격(언론 추정가)을 기준으로 한 '29년 양산 ASP(Avg. selling price)는 상업성 확보 관점에서 약 75% 수준의 CR(원가절감)이 적용된 대당 $70,50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이에, 연 30,000대 판매 물량 고려 시 연 매출은 $21억(2.85조원, 환율 1,350원 기준)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

[표1] HMG 로봇 3 만대 양산에 따른 매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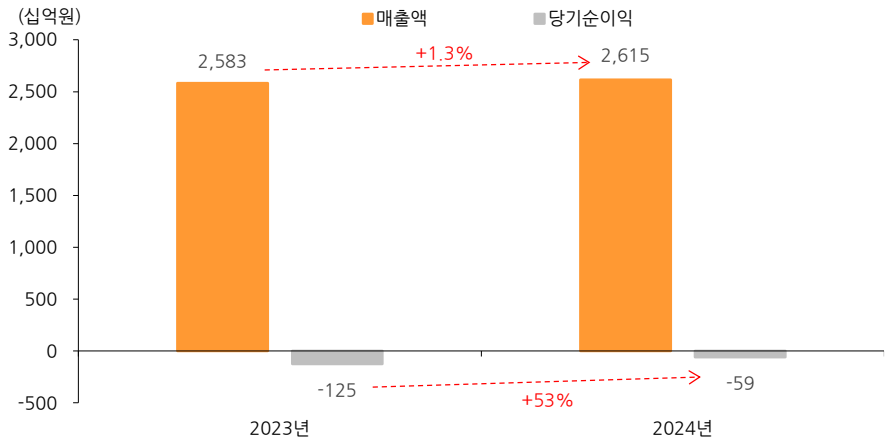
	생산량(대) (생산비중)	시제작 가격 (달러)	양산 가격 (달러)	CR ratio (%)	비고
로봇 제품별 추정					
ATLAS	15,000 (50%)	450,000	90,000	80	- 시제작 가격은 언론 추정치를 종합적 적용
SPOT	9,000 (30%)	75,000	45,000	40	- CR Ratio는 차량개발 단계별 시제작 대비 양산 가격 차이를 반영
STRETCH	6,000 (20%)	150,000	60,000	60	
HMG 로봇 매출 추정					
총생산량 (CAPA, 대)	30,000 (100%)				- 생산량 비중은 로봇별 수요 확장성 고려
ASP (달러)		277,500	70,500	-74.6	
매출액 (십억달러)				2.1	- 환율은 1,350 원/$ 적용
(십억원)				2,862	

자료: 언론종합,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이는 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현대오토에버의 '22년 매출(2.75조원) 규모와 유사하고 지난해 국내 상장 로봇기업 전체 매출 규모(2.6조원)와 맞먹는 수준으로, 그룹 차원에서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규모있게 확대한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

*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미래 모빌리티 기업 전환을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 中 로봇 매출 비중을 20%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

[그림1] 국내 상장 로봇 기업 매출 및 당기순이익 현황(2023~2024)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2] 국내 로봇 상장 기업 매출 현황(2023~2024)

법인유형	회사	매출액 (십억원)	
		2023 년	2024 년
코스피	두산로보틱스	53.0	46.8
	제우스	402.9	490.8
	에스피지	393.8	388.5
	삼익 THK	315.6	304.4
	고영	225.6	202.5
	스맥	176.6	201.3
코스닥	휴림로봇	82.7	133.1
	로보스타	102.7	89.1
	알에스오토메이션	79.8	76.8
	하이젠알앤엠	77.3	75.9
	미래컴퍼니	109.5	67.3
	기타	563.2	538.8
합계		**2,582.6**	**2,615.3**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② 미국을 로봇 Biz. 거점으로 육성)** 미국이 보유한 소비시장, AI 등 로보틱스 핵심 기술 역량에 대한 높은 접근성, 그리고 리쇼어링 측면에서의 로봇 활성화 정책 방향성 고려 시 'R&D-제조-판매' 기능을 정착/육성시키는 데 있어 최적

- **(잠재적 최대 수요처)** 미국은 전체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이를 만큼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으로, 향후 로봇 상용화 시 글로벌 국가 중 높은 소비 증가를 보일 것으로 기대. 특히, 최근의 제조/서비스 부문에서의 노동력 부족 문제 대응에 있어 로봇 및 자동화 수요 증가 예상
- **(로봇 핵심 기술 역량 접근성)** 미국은 국가별 AI 역량 평가에 있어 인력, 인프라, 투자 여력 등 각 영역에서 절대적 우위에 위치하고 있어 Physical AI로 대변되는 로보틱스 성능 고도화에 있어 여타 지역 대비 유리한 여건 보유. 현대차그룹은 BD를 주축으로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있어 RAI(Robotics & AI Institute) 설립을 통해 강화학습(Reinforced Leaning) 기반 지능형로봇 기술 역량을 강화 중

  * RAI는 BD 창립자인 마크 레이버트(Marc Reibert) 주도로 '22년 설립, 현대차, 기아, 모비스가 각각 47.5%, 28.5%, 19% 지분 보유 중

- **(리쇼어링 측면에서의 정책적 지원)** 미국은 트럼프정부 이후 관세정책을 통한 본격적인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인 상황. 자국 빅테크 기업(OpenAI, Google 등) 중심으로 전개 중인 Physical AI 핵심 Biz. 확장 영역인 로보틱스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가능성. 특히 최근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에 따라 로보틱스 생태계 전반(HW-SW-서비스)에 대한 자국 내 유치 및 Biz. 육성 가능성.

HMG 로봇 양산 추진에 따른 수혜 영역: 'SDV to Robotics' 확장 가능한 기능 부품/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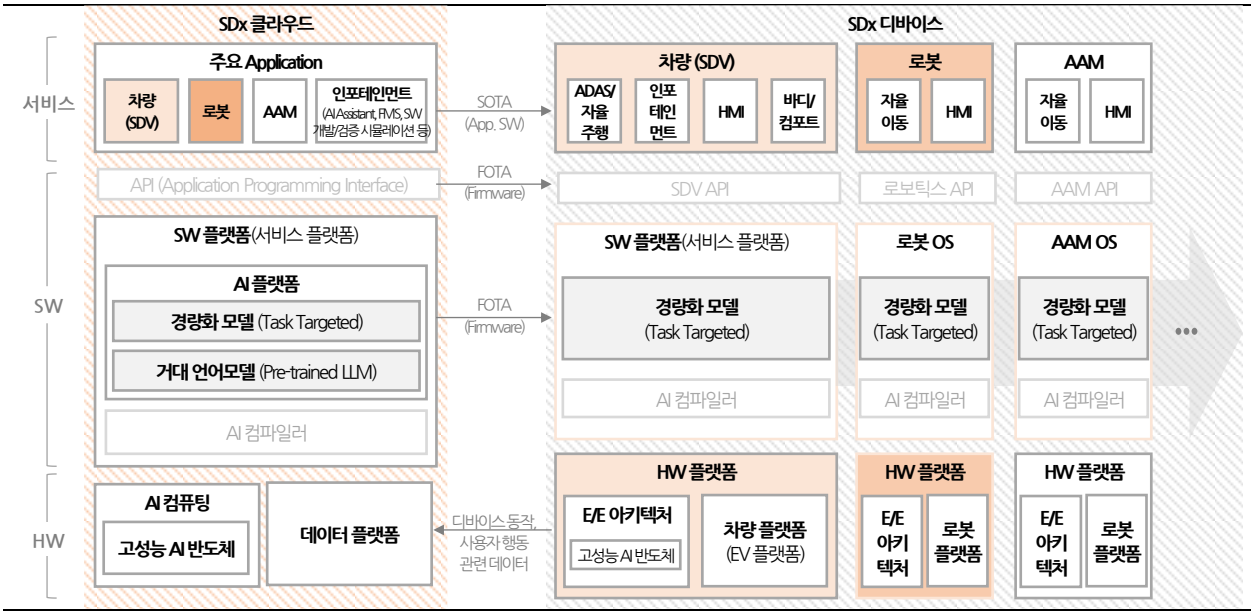
· **(HMG 내 SDV 밸류체인의 로봇 확장성에 주목)** BD/로보틱스 관련 지분투자 방식에서 실질적 Biz. 참여를 통한 매출 및 이익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로봇사업 전개에 따라, 로봇으로의 확장성 용이한 SDV 관련 부문의 수혜 가시화

- 현재 그룹 내 로보틱스 연관 계열사는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을 보유 중인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및 현대글로비스 중심이나, 향후 미국 내 3만대 규모의 로봇 제품을 직접 양산 및 상용화 추진함에 따라 실질적인 로봇 R&D/제조 및 설치/운영/유지보수 등 역할을 통해 매출/수익 창출이 가능한 부문(기능 부품HW/SW)에 주목 필요

- (HW) 최근 로봇 메커니즘 개발 방향은 기존 2족/4족 보행(Locomotion) 안정성 확보에서 다양한 물품을 자유롭게 파지하고 이송, 정리, 조립하는 등의 조작영역(Manipulation) 고도화에 집중됨에 따라 Arm/Hand부에 적용되는 액추에이터 및 사물과 로봇 자신의 움직임을 인지/판단할 수 있는 '비전(카메라/라이다 등) 기반 자기 인식/제어' 기술 수요 확대 예상 → 차량 조향/제동 등에 적용되는 모터 기반 액추에이터 및 비전인식 기반 주행/주차 제어기의 로봇 적용 확장성 확보 시 수혜 가능(현대모비스)

- (SW) 제조 및 물류자동화 등 로봇 적용 가능 영역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각 도메인별 특화된 인프라(설비/유틸리티 등)와 로봇간 연계 기능을 개발/적용하는 것이 중요. 즉, 각 영역에 맞게 로봇 동작 Task를 커스터마이징 개발/운영할 수 있는 로봇 SI 역할 중요도 증대 예상. → 차량의 주행 및 제조/물류 등 각 영역에 맞는 운영체제(ERP/MES, 차량 OS/미들웨어 플랫폼 등)를 구축/최적화하는 역량이 ATLAS/SPOT 등 여러 로봇을 통합 관제/운영 할 수 있는 솔루션 구축/최적화하는 역량으로 고도화 시 높은 수혜 예상(현대오토에버)

[그림2] SDV 에서 Robotics 영역으로의 HW/SW 확장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5 년 9 월 10 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성래, 김예인)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 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 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 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5 년 6 월 30 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0.4%	9.6%	0.0%	100.0%